

‘날씨 · 높은 농산물가격’ 지역별 성장주도

남미>동유럽>서유럽>극동>북미지역 순, ‘병해충 발생’ 감소 일본시장 하락
용도별로는 서유럽 · 남미시장 주도 ‘살균제’ 실적 좋아, 제초제>살충제 순

-시험부-

2007년 북미의 농약판매는 8,937백만 달러로 4.9%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주된 요소는 약 50% 가까이 향상된 순 농가소득으로, 이는 높은 농산물가격에 기인한다. 옥수수를 재배한 농민이 특히 높은 이익을 달성했으며, 이는 바이오에탄올 생산과 동물사료의 수요확대에 기인한다. 미국에서는 경작이 19% 늘어난 92.9백만 에이커에 달했다. 기록적인 높은 옥수수 가격에 힘입어 미국의 농부들은 높은 연료와 비료값에도 불구하고 재배하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옥수수 종자처리제의 판매가 급격히 느는 한편 선택성 제초제와 살균제의 판매 역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비선택성제초제인 글라이포세이트로서 추가로 늘어난 2500만 에이커의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옥수수를 관리하기 위해 작년대비 77% 증가하였다. 옥수수 면적의 확대는 면화와 콩 면적의 감소를 가져왔기에 이들 작물에서의 농약 판매는 각각 28%와 15%씩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작물에서 GM 종자가 많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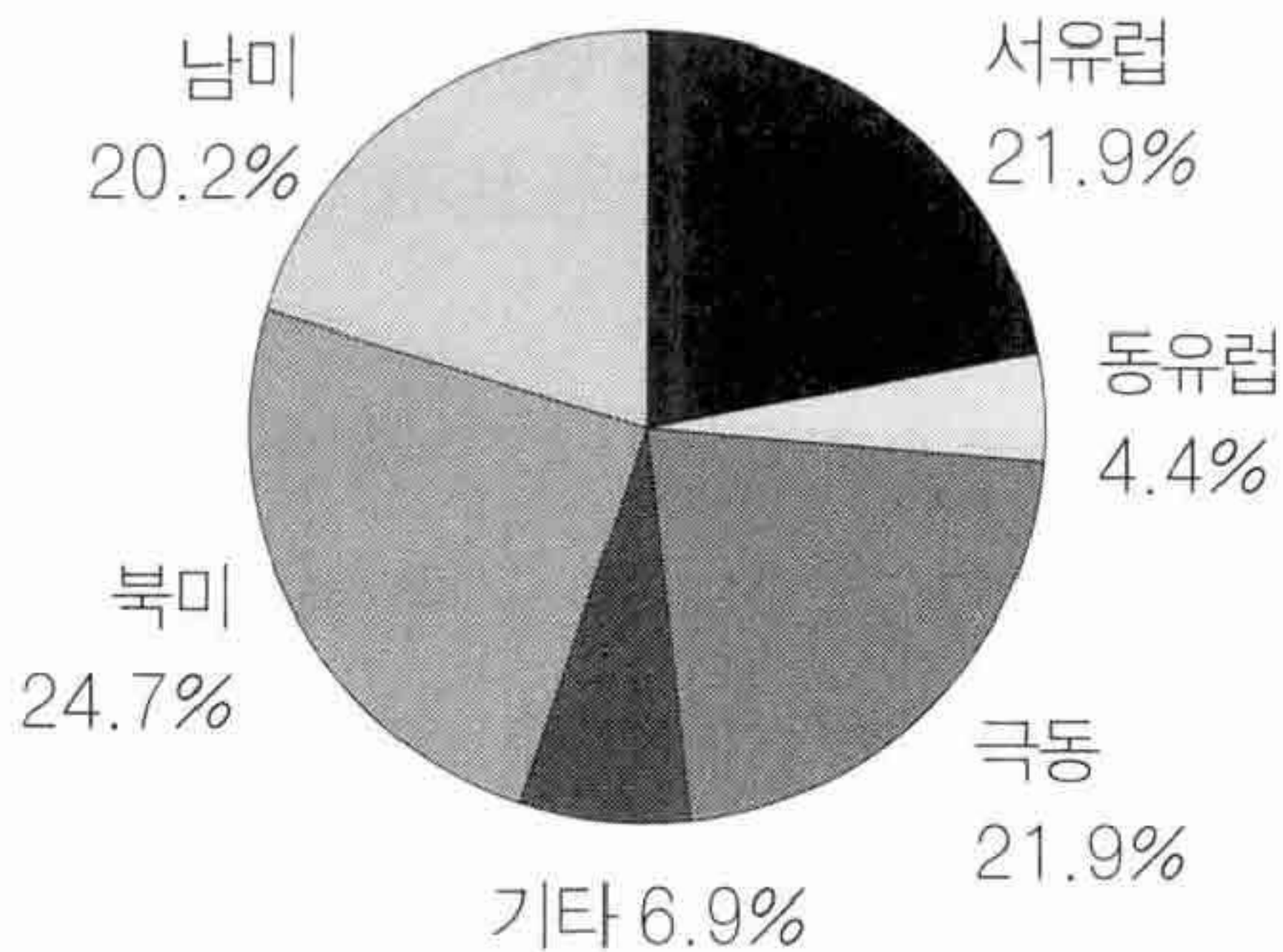
을 차지함에 따라 나타났다. 비록 종합적인 시장규모는 알맞게 유지되었지만 콩의 가격상승은 아시아에서 녹병균에 대한 보호살균제의 사용을 북돋았다. 글라이포세이트의 가격상승 또한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작물과 보존형 경운에 사용하기 위한 강한 수요에 기인한다. 더욱이 값비싼 원료 비용과 중국의 경직된 제네릭 공급회사들이 높은 글라이포세이트 가격에 힘을 싣고 있다.

남미는 가장 뛰어난 실적을 낸 지역으로 판매는 총 7,323백만달러로 29%의 급격한 판매 성장을 이루었다. 핵심시장인 브라질의 경우 지난 2년간의 감소에서 회복하며 달러 기준 약 53억달러 이상을 판매, 30%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은 높은 농산물 값이 버팀목이 되어주어 농민의 신용도 상승과 농약구매를 위한 대부를 얻기가 편해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성장은 콩, 옥수수, 사탕수수, 면화에 대한 제품을 필두로 시장의 전 부분에서 고르게 이루어졌다. 사탕수수의 제초제와 살충제 사용은 에탄올 제조를 위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확대되었다. 브라질 또한 작년의 두 자릿 수 감소에 대비하여 새로운 재배기간에 농약 가격이 급격히 회복하였다. 특히, 글라이포세이트의 가격은 중국 공급의 경직에 의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콩 경작의 충격을 상쇄시켜 주었다. 콩에서는 시장의 확대와 기후조건이 농약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녹병에 대한 살균제의 판매가 되살아났다. 남미의 다른 수출지향의 시장 역시 높은 판매를 이루었다.

2007지역별 농약시장 점유율



서유럽 시장은 유로화의 강세를 통해 활성화되어 15.6% 증가한 7,930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로화 기준으로 농약시장은 6%이상의 완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지역적인 시장은 온화한 겨울 덕분에 계절이 빨리 시작되어 도움을 받았다. 곡물이 핵심 요인으로 높은 가격과 낮은 재고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작이 확대되었다. 이로써 EU는 2007-2008년 동안 작물재배면적 증가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파기시켰다. 이처럼 제초제, 살균제, 종자처리제가 특히 날씨가 좋은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강하게 판매되는 결과는 늘어나는 질병과 잡초의 위기에 기인한다. 몇몇 새로운 고성능 제품들의 강력한 방제

성과는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제공했다. 곡물에 이어 지방종자인 유채시장은 바이오디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여름의 습한 기후는 과일과 채소에서 질병이 만연하게 만들었고, 특히 감자 잎마름병에 대한 살균제의 판매가 상승하였다. 포도의 경우 구리와 다른 살균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전체 살충제 판매의 경우 완만하게만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유럽의 남부 국가에서 유기인산염과 다른 오래된 약제들의 사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의 판매는 가뭄으로 인해 또다시 감소하였다.

동유럽에서는 18.9% 증가한 1,577백만달러를 판매하였다. 이 지역은 농업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지원을 받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이곳에 새로운 판매사무소를 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제품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농가가 늘어나면서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농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필수규정 또한 주로 새로운 EU 가입국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곳은 지속적인 발전에 더해 동유럽의 농약판매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주요 곡물시장에서 높은 곡물 가격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극동지역의 판매시장은 6.4% 늘어난 7,93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의 판매는 중국, 일본, 호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번에 중국은 또다시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선도와 수출농업의 성장, 높은 농산물 가격, 그리고 육류와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하기 원하는 자국내 시장의 확대가 모여 중국 시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농가소득을 증대시켰고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좀 더

비싼 외국산 브랜드 제품의 사용도 북돋았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줄곧 시장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왔다. 하지만 이제 농약업계는 새로운 환경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글라이포세이트와 같은 몇몇 농약제품은 생산에 영향을 받고 가격은 올라갔다. 중국은 또한 2007년에 몇몇 유기인계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대체약제인 피레스로이드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큰 성장을 가져왔다.

일본시장은 현지화와 달러화 기준 모두 또 다시 하락하였다.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을 받아 해충과 질병의 발생이 감소되어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늘어난 태풍의 영향으로 작물 경작에 악영향을 주는 한편, 강화된 잔류허용기준이 농약사용을 감소시켰다. 유통채널의 조정도 판매를 더욱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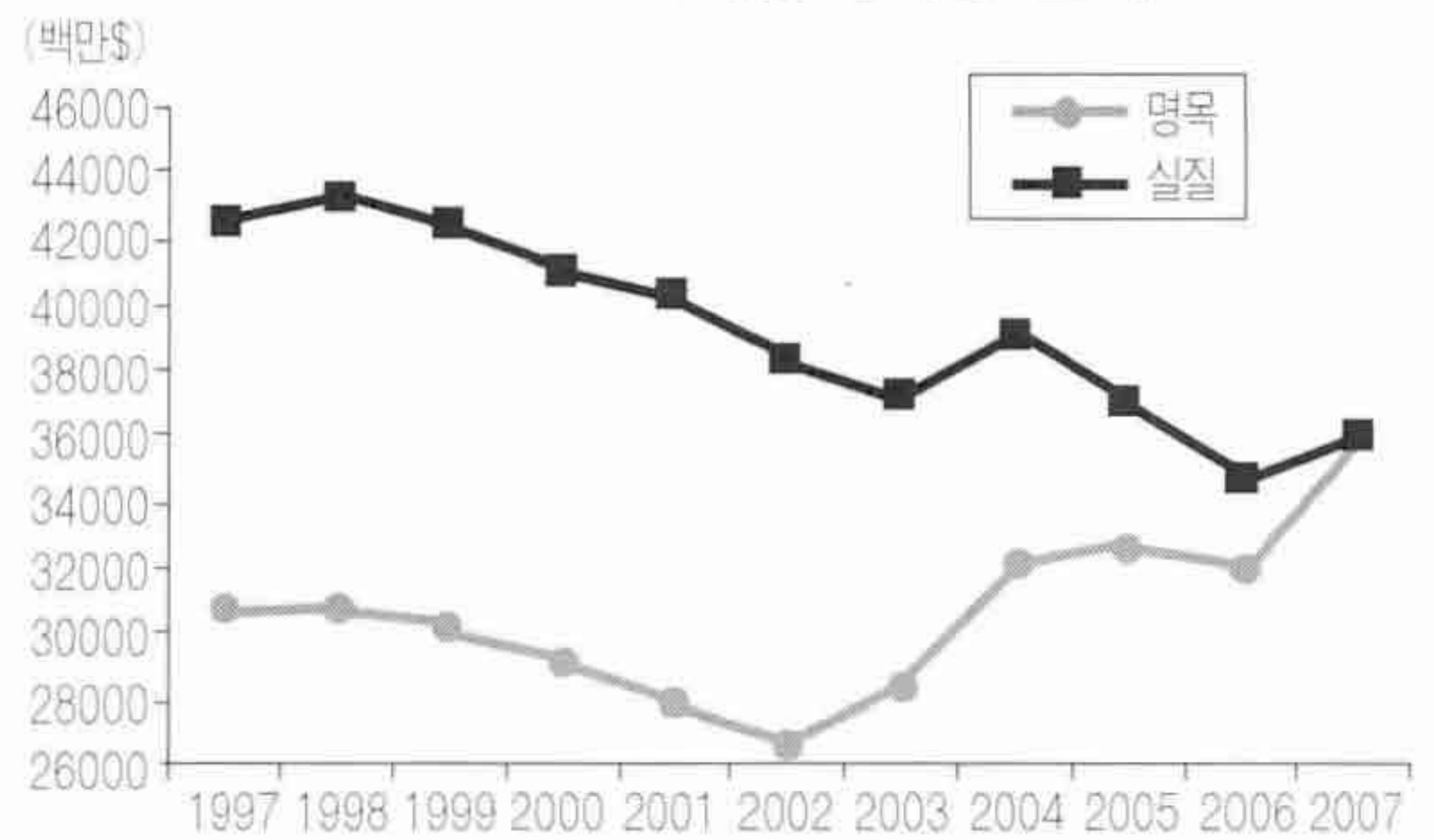
호주시장에서의 판매는 상반기의 건조한 날씨가 하작물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어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작물 기간의 계속된 강우는 상반기의 판매부진을 만회해 주었다. 글라이포세이트의 판매는 높은 가격과 수요의 결합으로 특히나 강세를 나타냈다.

그 밖의 지역으로 주요 쌀 생산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 쌀 가격의 상승으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쌀 시장의 개혁진행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였다.

전 세계의 나머지 지역은 6.7% 늘어난 2,484백만달러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인도 시장의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온화한 몬순기후가 최적의 재배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용도별 판매에 따르면 살균제가 15.4% 늘어난 8,293백만달러로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증가는 서유럽과 남미에 의해 주도

1997-2007세계농약시장 변화



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경제력과 재배환경이 살균제 수요가 쇄도하게 만들었다. 곡물 재배가 증가함으로 인해 생육기 동안 사용하는 살균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스트로빌루린계와 클로로탈로닐도 판매가 좋았지만, 특히나 프로치오코나졸과 같은 트리아졸계가 성장을 이끌었다.

서유럽의 매출은 지난해 중반기의 습한 기후 때문에 주로 감자와 포도에서 폭넓게 창궐한 질병들로 인해 늘어났다. 브라질에서의 경기회복은 모든 작물의 살균제의 수요를 높여 주었다. 콩의 경우 녹병균에 대한 살균제 판매가 크게 회복되었는데 이는 경작기 사이 90일간 휴경정책의 결과 늦게 발생한 병해 때문이다. 북미지역의 경우 2007년에 콩 녹병이 캐나다에 발병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경제적 영향은 극히 미미하였다. 미국의 경우 옥수수에 대한 살균제 중 종자처리제와 경영처리제 둘 다 충분히 증가하였다. 새로운 과채류 살균제인 보스칼리드와 맨디프로파미드 그리고 쿠퍼(동) 제품들 역시 유럽에서 좋은 실적을 냈다.

제초제는 12.6% 증가하여 16,801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살균제 다음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 가장 큰 이유는 글리포세이트가 판매량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양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메리카 대

2007용도별 시장

용도별(백만\$)	2006	2007	증 감
제초제	14,920	16,801	+12.6%
살충제	8,471	9,367	+10.6%
살균제	7,185	8,293	+15.4%
기타제	1,586	1,722	+8.6%
계	32,162	36,183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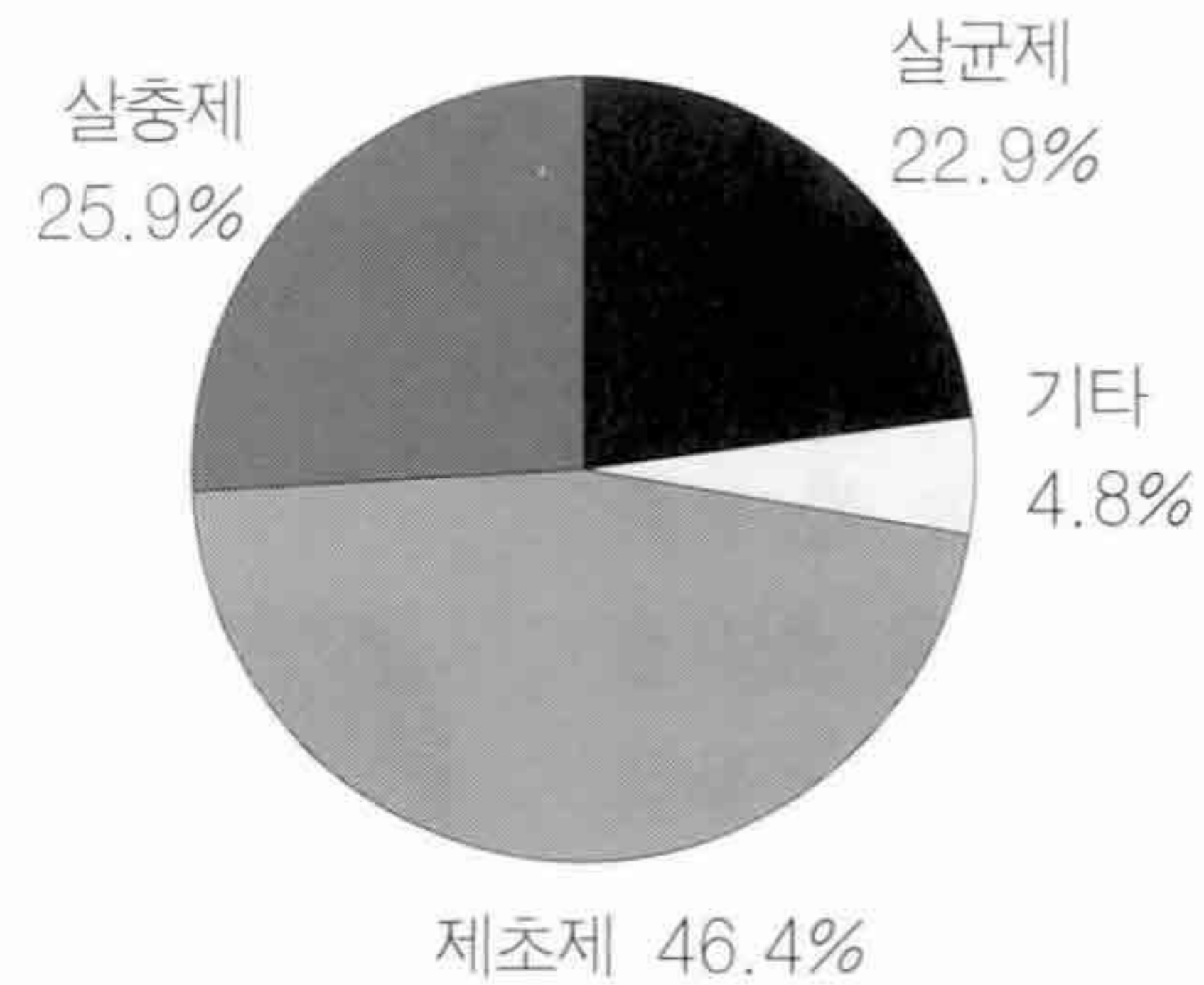
룩에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작물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인데, 특히나 미국의 옥수수과 브라질의 콩에 기인한다. 더구나 보존형 경운의 경향은 북미와 남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 인도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판매가격이 오른 글리포세이트의 맹렬한 소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환경문제와 한정된 제조회사 때문에 생산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글리포세이트와는 별개로 글루포시네이트와 파라쿼트같은 다른 비선택성 제초제의 판매 또한 증가하였다. 선택성 제초제의 판매는 옥수수, 곡물, 지방종자유채, 포도, 그리고 사탕수수의 재배지가 확대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미국에서 콩과 목화에서의 제초제 판매가 줄어들었지만, 남미에서의 상승이 이를 상쇄하였다.

미국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저항성 작물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안, 농민들은 특히 잔류성을 가진 예전의 농약으로 점차 이를 보완하였다. 이것은 저항성 잡초 문제의 방제와 관리를 확대하였다.

중국은 계속된 번영과 농민의 도시 유입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으로 제초제의 수요가 매우 늘어났다. 호주 역시 수분 증가로 인해 잡초의 생장이 촉진되어 제초제 매출이 증가하였다.

살충제의 판매는 10.6% 증가한 9,36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시장은 유럽의 온화한 겨울과 남미와 인도의 유리한 요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특히나, 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과 같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의 옥수수 종자처리제가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제품들의 판매는 북미와 남미에서 확대되었는데, 농부들이 치솟는 옥수수 가격에 발맞춰 많은 수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007용도별 시장 점유율



미국에서는 뿌리벌레 저항성 옥수수의 확대가 테플루트린과 같은 토양살충제의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 역시 동유럽의 수요 증가로 상쇄되었다. 목화에 사용하는 살충제 역시 미국에서는 현저히 낮았으나 남미에서 증가하였다. 유기인계와 같은 오래된 합성 제품은 중국과 그 밖의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감축되었다. 이것은 피레스로이드계와 같은 대체 농약과 이미다클로프리드와 아바멕틴 같은 새롭게 특허가 만료되는 살충제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미다클로프리드는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전세계 매출은 매우 낮은 비율로 상승했지만 판매량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Y